

민주, 협치 이끌 '친화력'...국민의당, 당 재건 '리더십'

당 체제 정비 나서는 여야...16일 원내대표 선출

민주 3선 홍영표·우원식 2파전...추미에 거취도 관심

국민의당 주승용 대행...유성엽·김관영·장병완 신경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선에 끝나면서 여야 정당들은 원내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 선출 등 당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우선 여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여소야대(小野大) 국회를 이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국회에서 지원하느라 실질적 파트너로 과거 정부에서 첫 원내대표를 맡았던 박희태(자유한국당)가 통하는 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에서 야당들과의 협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친화력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레아만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야당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말 1년 임기가 끝나지만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조금 빨리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16일 3선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한편 추미에 대표의 거취 문제도 관심이 많다. 추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아직 1년 이상 남았다. 일단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본인이나 물러나지 않는 한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내년 서울시장 출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 등으로 내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것 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11일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했다. 박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사퇴를 의결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차기 원내 대표 선출 때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고, 장병완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가 당 수습을 맡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원내대표직을 놓고는 호남 중진 의원들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유성엽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재선·군산)가 결심을 굳힌 가운데 김동철(4선·광주 광산) 의원과 장병완(3선·광주 동구 남구)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임기가 끝나지만 '제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고 있다. 임기가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욕심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

고 있다. 유성엽 의원도 현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원내대표 출마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문병호·황주홍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 빈축을 샀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박 대표가 사퇴를 미루면서 상왕 노릇을 하려한다"고 비난했으며 황 의원은 사전 상의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지도부 사퇴를 발의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4월 대선 과정에서 박지원 대표의 선대위 불참을 주장하는 등 당내 분란을 키웠다는 논쟁을 받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정도면 당의 위기 국면에서 물 밑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문병호, 황주홍 최고위원은 비판에 앞서 자기 자신이 당을 위해 뭘 했는지 뒤 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영선 "심상정·유승민 입각 가능"

정의 추구하면 한국당도...국민의당과 통합은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구성하고자 하는 '통합 정부' 범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국당 중에서도 탄핵이나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동참한 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겠다, 정의를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사람은 당적과 상관없이 일하겠다'고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대표를 '협치'의 상징으로서 노동부 장관에 기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의 입각 가능성을 두고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깊은 마음속에는 대한민국 '통합 드림팀'을 만들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다. 마음 속에 두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YTN 라디오에 출연해

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형제 당이다. 형제 당으로서 우애를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느냐가 호남 민심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무슨 합당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호남의 민심이 그것을 만들어 줄 것이며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바른정당 회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다만 "경제의 어려움과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더 잘 고민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선거 과정에서 느꼈다"며 "그래서 아주 상당히 많은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일곱번째)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웃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바른정당도 당권 놓고 신경전

한국당, 홍준표·정우택 '의지'...안상수·홍문종·나경원 가세

바른정당, 유승민 백의종군에 김무성 관심...15·16일 연찬회

9년여 만에 집권당 자리를 물러나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벌써 차기 당권후보 하마평이 한창이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까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과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나경원·안상수·홍문종 의원 등이 회자되고 있다.

홍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은

세월이 청창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며 "이번 대선을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 올렸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끄는 정우택 권한대행도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안상수, 홍문종, 나경원 의원 등도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전대는 당이 한때 공중분해 위기에

까지 몰렸던 만큼 어떤 식으로도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의 부활과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 문제 등은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폭적인 살림살이 축소에 나섰다. 대선 패배로 본격 야당의 길을 걷게 된 이상 살림살이도 집권여당 시절과 같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바른정당의 분당 등으로 정당 보조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우선 여의도 당사의 공간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 이어 당직자 등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정당도 '포스트 대선' 국면을 수습할 지도부 체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함에 따라 당내 눈길은 자연스럽게 바른정당의 또 다른 축인 김무성 의원으로 모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오는 15~16일 강원도 고성에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찬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대선 패배 이후 바른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향후 지도부 체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 의원의 역할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바른정당에 남은 의원 20명이 '김무성 역할론'에 불을 댕길 만큼 일치단결의 목소리로 김 의원에게 당 수습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홍준표 "민주당 마음대로 하게 안돌것"

선대위 만찬... "앞으로 한국당과 대립 더 극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후보는 11일 "호남 1·2중대(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는 통합될 것"이라며 "어차피 한국당과 민주당은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후보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예상한 뒤 "자기들 마음대로(하도록) 절대 안 놔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에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가 임명된 데 대해 "서울대 교수를 사퇴하고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가 "조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삼승 고역 세균제남 명단에 올랐다"고 말하자 홍 전 후보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초기에 (현 민주당이) 얼마나 분탕질을 쳤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참패하고 대선 불복도 했다.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댓글 하

나만 갖고 몇 년을 끌고 가나"라며 "거기다가 세월호, 박근혜가 세월호 운전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는 거 용서하면 안 된다. (보수를) 불태운다고, 궤멸시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앞서 홍 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의 전략적 투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 우리에게 2%도 주지 않는 야박함과 문 후보에게만 전략적으로 몰아주는 호남 민심이 참으로 무섭다"고 적었다.

그는 "이렇게 묻지 마 목표로 지역을 갈라놓고 어떻게 지역감정 해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격정이다"고 비판했다.

만찬에는 후보 수행단장을 맡았던 김대식 교수와 강석호·김명연·김선동·민경욱·윤한홍·정종삼·강효상·김종석·김성태(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